

전주대, HK+연구단 국제학술대회 개최

송동호 기자 작성 2018.10.19 17:38 댓글 0



[KNS뉴스통신=송동호 기자]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HK+연구단(단장 변주승)과 인문과학종합 연구소(소장 이용욱)는 지난 18일, 전주대 대학본부 3층 소회의실에서 '동아시아 유교문화의 현재적 계승과 발전'이라는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탈유교 사회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유교문화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그 현재적 의미에 대한 다양한 연구 관점을 공유하기 위해 진행됐다.

국제학술대회 1부에서는 '근현대 유학자의 사상과 사회관계망'이라는 주제로 전북지역 유학자의 사상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고, AI기술을 이용하여 전북지역 유학자의 관계망을 입체적으로 재현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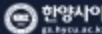
2부에서는 중국, 일본, 베트남의 연구자들이 자국 유교문화를 동아시아적 의미로 해석한 논문을 발표했다.

김언종 고려대 명예교수의 '한자 문화권에서 유학의 의미와 현재적 의미'라는 기초강연을 시작으로, 박은숙 중국 산둥대 교수의 '개화기 소설 속에 나타난 유교 문화에 대한 인식 연구', 마쓰카와 마사노부 일본 리츠메이칸대 연구원의 '일본 근세의 유교 의례와 그 현대적 계승', 팜티응옥 베트남 하노이대 교수의 '한국-베트남의 경어법을 통해 본 문화 비교 연구' 등 각 나라의 유교문화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고전학연구소 변주승 단장은 "유교문화의 기원과 현 단계 유교문화의 의미를 탐색하여 미래 공동체 대안 모색을 위해 이번 학술대회를 마련했다."라며, "한중일베 연구자들이 자국 유교문화를 재탐색하고 각국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를 가졌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는 2011년에 설립되어 한국고전번역원의 권역별 거점연구소 협동 번역사업과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학 기초자료 사업 등의 연구를 진행해왔으며, 지난 5월 1일 2018년도 인문한국플러스(HK+)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근현대 유교문화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재사유를 통해 급격한 사회 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 공동체의 대안 모색에 주목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송동호 기자 ksbgsong@hanmail.net



한양사이버대학교 대학원
HANYANG CYBER UNIVERSITY

**명문
한양사이버대학원
정규 석사학위 취득**

10.29 - 12.06
2019학년도 신입생 모집

입학 신청하기 >

- 잦은 건망증, '섬망'일까 '치매'일까?.....소울한...
- 잦은방귀,뱃속"기름덩어리"엄청 빨리빠?
- 찢어터진 "발 통증" 족저근막염 해결법은?
- 치킨집, 편의점 망하고 '이것'이 뜬다..충격!
- "역류성식도염,소화불량"원인 밝혀져..간단치료?!
- 임플란트 "실제비용" 밝혀져 "엄게 발칵"

전주대, HK+연구단 국제학술대회 개최

머니투데이 대학경제 권태혁 기자 | 입력 : 20181019 1659

기사	소셜댓글(0)	기사공유	가	+	-
----	---------	------	---	---	---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HK+연구단과 인문과학종합연구소는 지난 18일 교내 대학본부 3층 소회의실에서 '동아시아 유교 문화의 현재적 계승과 발전'을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아직 남아있는 유교 문화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그 현재적 의미에 대한 다양한 연구 관점을 공유하기 위해 기획됐다.

1부에서는 '근현대 유학자의 사상과 사회관계망'이라는 주제로 전북지역 유학자의 사상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고, AI 기술을 이용해 전북지역 유학자의 관계망을 입체적으로 재현할 방법을 소개했다.

이어진 2부에서는 중국, 일본, 베트남의 연구자들이 자국 유교문화를 동아시아적 의미로 해석한 논문을 발표했다.

김언중 고려대 명예교수의 '한자 문화권에서 유학의 의미와 현재적 의미'라는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박은숙 중국 산둥대 교수의 '개화기 소설 속에 나타난 유교 문화에 대한 인식 연구', 마쓰카와 마사노부 일본 리츠메이칸대 연구원의 '일본 근세의 유교 의례와 그 현대적 계승', 팜티응옥 베트남 하노이대 교수의 '한국-베트남의 경어법을 통해 본 문화 비교 연구' 등 각 나라의 유교 문화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변주승 한국고전학연구소 단장은 "유교 문화의 기원과 현 단계 유교 문화의 의미를 탐색하고 미래 공동체 대안 모색을 위해 이번 학술대회를 마련했다"며 "한·중·일·베 연구자들이 자국 유교 문화를 재탐색하고 각국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는 지난 2011년에 설립돼 한국고전번역원의 권역별 거점연구소 협동번역사업과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학 기초자료 사업 등을 진행했으며, 올해에는 '2018년도 인문한국플러스(HK+)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HOME > 뉴스 > 교육

전주대, HK+연구단 국제학술대회 개최

뉴스인전북(News人 Jeonbuk) | 승인 2018.10.21 15:06 | 댓글 0

‘동아시아 유교문화의 현재적 계승과 발전’이라는 주제로 열려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HK+연구단(단장 변주승)과 인문과학종합연구소(소장 이용욱)는 지난 18일, 오후 1시부터 전주대 대학본부 3층 소회의실에서 '동아시아 유교문화의 현재적 계승과 발전'이라는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탈유교 사회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유교문화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그 현재적 의미에 대한 다양한 연구 관점을 공유하기 위해 진행됐다.

국제학술대회 1부에서는 '근현대 유학자의 사상과 사회관계망'이라는 주제로 전북지역 유학자의 사상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고, AI기술을 이용하여 전북지역 유학자의 관계망을 입체적으로 재현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2부에서는 중국, 일본, 베트남의 연구자들이 자국 유교문화를 동아시아적 의미로 해석한 논문을 발표했다.

김연중 고려대 명예교수의 '한자 문화권에서 유학의 의미와 현재적 의미'라는 기초강연을 시작으로, 박은숙 중국 산둥대 교수의 '개화기 소설 속에 나타난 유교 문화에 대한 인식 연구', 마쓰카와 마사노부 일본 리츠메이칸대 연구원의 '일본 근세의 유교 의례와 그 현대적 계승', 팜티응옥 베트남 하노이대 교수의 '한국-베트남의 경어법을 통해 본 문화 비교 연구' 등 각 나라의 유교문화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고전학연구소 변주승 단장은 "유교문화의 기원과 현 단계 유교문화의 의미를 탐색하여 미래 공동체 대안 모색을 위해 이번 학술대회를 마련했다."라며, "한중일베 연구자들이 자국 유교문화를 재탐색하고 각국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를 가졌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는 2011년에 설립되어 한국고전번역원의 권역별 거점연구소 협동번역사업과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학 기초자료 사업 등의 연구를 진행해왔으며, 2018년 5월 1일 2018년도 인문한국플러스(HK+)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근현대 유교문화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재사유를 통해 급격한 사회 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 공동체의 대안 모색에 주목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HOME > 교육 > 대학

전주대, HK+연구단 국제학술대회 개최

☰ 정병창 | ⌚ 승인 2018.10.21 12:03 | 💬 댓글 0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HK+연구단(단장 변주승)과 인문과학종합연구소(소장 이용욱)는 18일 전주대 대학본부 3층 소회의실에서 '동아시아 유교문화의 현재적 계승과 발전'이라는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탈유교 사회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유교문화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그 현재적 의미에 대한 다양한 연구 관점을 공유키 위해 마련됐다.

이날 1부에선 '근현대 유학자의 사상과 사회관계망'이라는 주제로 전북지역 유학자의 사상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고, AI기술을 이용해 전북지역 유학자의 관계망을 입체적으로 재현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2부에선 중국, 일본, 베트남의 연구자들이 자국 유교문화를 동아시아적 의미로 해석한 논문을 발표했다.

김언종 고려대 명예교수의 '한자 문화권에서 유학의 의미와 현재적 의미'라는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박은숙 중국 산둥대 교수의 '개화기 소설 속에 나타난 유교 문화에 대한 인식 연구', 마쓰카와 마사노부 일본 리츠메이칸대 연구원의 '일본 근세의 유교 의례와 그 현대적 계승', 팜티응옥 베트남 하노이대 교수의 '한국-베트남의 경어법을 통해 본 문화 비교 연구' 등 각 나라의 유교문화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고전학연구소 변주승 단장은 "유교문화의 기원과 현 단계 유교문화의 의미를 탐색하여 미래 공동체 대안 모색을 위해 이번 학술대회를 마련했다"면서 "한·중·일·베 연구자들이 자국 유교문화를 재탐색하고 각국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를 가졌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는 2011년에 설립되어 한국고전번역원의 권역별 거점연구소 협동번역사업과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학 기초자료 사업 등의 연구를 진행해왔다.

또 2018년에 인문한국플러스(HK+) 지원사업에 선정돼 근현대 유교문화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재사유를 통해 급격한 사회 변동에 대응키 위한 미래 공동체의 대안 모색에 주목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최신기사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스포츠

지역

사람들

전주매일

NEWS

전체보기

교육 일반

대학

▶ 뉴스 홈 > > 대학 기사목록

글자크게 +

글자작게 -

‘동아시아 유교문화의 현재적 계승과 발전’

전주대, HK+연구단 국제학술대회 개최

기사입력 2018-10-21 오전 12:25:00 | 최종수정 2018-10-21 00:25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HK+연구단(단장 변주승)과 인문과학종합연구소(소장 이용욱)는 지난 18일 전주대 대학본부 3층 소회의실에서 ‘동아시아 유교문화의 현재적 계승과 발전’이라는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탈유교 사회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유교문화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그 현재적 의미에 대한 다양한 연구 관점을 공유하기 위해 진행됐다.

국제학술대회 1부에서는 ‘근현대 유학자의 사상과 사회관계망’이라는 주제로 전북 지역 유학자의 사상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고, AI기술을 이용하여 전북지역 유학자의 관계망을 입체적으로 재현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2부에서는 중국, 일본, 베트남의 연구자들이 자국 유교문화를 동아시아적 의미로 해석한 논문을 발표했다.

김언종 고려대 명예교수의 ‘한자 문화권에서 유학의 의미와 현재적 의미’라는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박은숙 중국 산둥대 교수의 ‘개화기 소설 속에 나타난 유교 문화에 대한 인식 연구’, 마쓰카와 마사노부 일본 리츠메이칸대 연구원의 ‘일본 근세의 유교 의례와 그 현대적 계승’, 팜티응옥 베트남 하노이대 교수의 ‘한국-베트남의 경어법을 통해 본 문화 비교 연구’ 등 각 나라의 유교문화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고전학연구소 변주승 단장은 “유교문화의 기원과 현 단계 유교문화의 의미를 탐색하여 미래 공동체 대안 모색을 위해 이번 학술대회를 마련했다.”라며, “한·중·일·베 연구자들이 자국 유교문화를 재탐색하고 각국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를 가졌다.”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장은성 작성기사더보기

전주대 HK+연구단 국제학술대회

유교문화 비판적 성찰·다양한 연구 관점 공유

기동취재부 | 입력 : 2018/10/21 [21:27]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HK+연구단(단장 변주승)과 인문과학종합연구소(소장 이용욱)는 지난 18일 전주대 대학본부 3층 소회의실에서 '동아시아 유교문화의 현재적 계승과 발전'이라는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탈유교 사회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유교문화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그 현재적 의미에 대한 다양한 연구 관점을 공유하기 위해 진행됐다.

국제학술대회 1부에서는 '근현대 유학자의 사상과 사회관계망'이라는 주제로 전북지역 유학자의 사상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고, AI기술을 이용해 전북지역 유학자의 관계망을 입체적으로 재현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2부에서는 중국, 일본, 베트남의 연구자들이 자국 유교문화를 동아시아적 의미로 해석한 논문을 발표했다.

김연중 고려대 명예교수의 '한자 문화권에서 유학의 의미와 현재적 의미'라는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박은숙 중국 산둥대 교수의 '개화기 소설 속에 나타난 유교 문화에 대한 인식 연구', 마쓰카와 마사노부 일본 리츠메이칸대 연구원의 '일본 근세의 유교 의례와 그 현대적 계승', 팜티응옥 베트남 하노이대 교수의 '한국-베트남의 경어법을 통해 본 문화 비교 연구' 등 각 나라의 유교문화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고전학연구소 변주승 단장은 "유교문화의 기원과 현 단계 유교문화의 의미를 탐색해 미래 공동체 대안 모색을 위해 이번 학술대회를 마련했다"며 "한·중·일·베 연구자들이 자국 유교문화를 재탐색하고 각국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를 가졌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는 2011년에 설립돼 한국고전번역원의 권역별 거점연구소 협동번역사업과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학 기초자료 사업 등의 연구를 진행해왔으며 지난 5월 1일 2018년도 인문학플러스(HK+) 지원사업에 선정돼 급격한 사회 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 공동체의 대안 모색에 주목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기동취재부 gkg8@daum.net